

슈페터의 經濟學體系와 思想

姜 命 圭*⁽¹⁾

<目 次>

I. 序 論
II. 靜態的 均衡理論—파라다임의 繼承
III. 動態的 發展理論—開放體系
IV. 歷史的 動學理論의 體系
V. 資本主義의 運命—體制變革의 內在的 條件
VI. 結 語

I. 序 論

現在까지 判明된 都合 20卷에 달하는 슈페터의 著書 중 主要著作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大體로 이렇게 分類된다.

첫째는 經濟理論내지 純粹經濟學 分野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理論經濟學의 本質과 主要內容』(1908), 『經濟發展의 理論』(1912), 『景氣循環論』(1939), 『貨幣의 本質』(1970)⁽²⁾ 등이고,

둘째는 資本主義體制를 둘러싼 廣意의 社會學的 關心領域에 속하는 것으로서 『租稅國家의 危機』(1918), 『帝國主義의 社會學』(1919), 『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1942) 등이며,

셋째는 經濟思想史의 領域에 속하는 力作으로서 『經濟學說 및 方法論史의 諸段階』(1914), 『社會科學의 過去와 未來』(1915),⁽³⁾ 『十大經濟學者』(1951), 『經濟分析의 歷史』(1954) 등이 라 할 수 있겠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本論文은 1983學年度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의 支援을 받아 作成된 것임.

- (1) 이 글은 우리 나라에서 슈페터研究의 獨步의 存在인 恩師 李相球教授의 40餘年에 걸친 業績에 힘입은 바 크며 특히 筆者의 大學時節 原書講讀을 통해 슈페터에 관한 關心을 일게 한 學恩에 대한 작은 報答임을 밝혀 둔다.
- (2) *Das Wesen des Geldes*, ed. by F.K. Mann, 1970. 이 책은 슈페터가 1929년에 집필했다가 케인즈의 『貨幣論』(1930)이 나오자 그 出版을 拒否했던 遺稿를 整理 刊行한 것이므로 그의 貨幣理論을 밝혀 줄 未發掘의 大作이다.
- (3) *Vergangenheit und Zukunft der Sozialwissenschaft*, 1915. 그가 最初로 부임한 체르노비치(Czernowitz)大學에서 行한 講演內容(1911)을 同大學 『社會科學論集』 第7卷으로 出刊한 것인데, 유럽의 社會科學知性史에 관한 該博한 知識과 그의 早熟性은 이 책만으로도 餘地 없이 發揮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슈페터의 平生의 學問的 關心領域은 純粹經濟理論과 資本主義體制論과 經濟學史의 세 分野에 걸쳐 있음을 着取할 수 있다.⁽⁴⁾ 한편 이와 같은 슈페터의 세 가지 關心 分野는 그의 生涯에 있어서 確然히 區分되는 세 가지 活動段階의 發展過程과도 相當한 關聯性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自身이 「저 聖스러운 多産의 10年(that decade of sacred fertility)」이라고 불렀고 또 스스로가 이를 實證해 낸 標本이기도 했던 슈페터의 學問的 礎石은 그가 若冠 25歲 때 著述한 『理論經濟學의 本質과 主要內容』과 29歲 때 쓴 『經濟發展의 理論』에 의해 이미 닳여져 있었던 것이다. 20代에 發揮되었던 그의 早熟性과 天才性이 經濟學史上 보기 드문 事例임은 共知하는 바와 같다. 이같은 純粹經濟學의 段階를 거친 슈페터가 베를린의 社會化審議會(1918)에 參加하고, 오스트리아의 財務長官(1919), 비더만(Biederman)銀行總裁(1921)를 歷任하면서 短期間이지만 體制問題를 비롯한 財政·金融·外資·生産·企業問題에 관한 積極的인 現實參與에서 쓰라린 試行錯誤를 맛보았던 30代에 『租稅國家의 危機』, 『帝國主義의 社會學』 같은 政府·體制問題를 다루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같은 現實參與의 失敗에서 손을 빼고 大學에 復歸(1925年 본(Bonn)大學)한 후 自己整理를 거쳐⁽⁵⁾ 渡美 하버드(Harvard)大學 教授로 定着한 것이 1932年이므로 그의 나이 50이 다 된 때이다. 하버드에서의 18年 間은 前述한 『景氣循環論』을 통하여 資本主義的 經濟過程의 理論의 分析과 統計的·歷史的 分析을 統合하고 『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를 통해서는 資本主義體制的 歷史的 運命을 豫見하는 등 슈페터體系의 整理와 綜合化를 摸索했던 것이다. 이 段階의 슈페터가 畢生의 事業으로 心血을 기울인 것은 『經濟分析의 歷史』의 執筆을 통한 슈페터體系의 總整理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本論文은 純粹經濟理論家인 슈페터가 그의 關心領域인 理論→體制→歷史의 문제에 그 視界를 擴大해 가면서도 그 內面的 統一性을 잃지 않고 20世紀 經濟學史에 우뚝 솟은 하나의 巨峰을 이루게 된 背景을 究明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나 슈페터體系는 學派를 形成하지 않은 채 獨自的으로 우뚝 서 있는 體系이기 때문에 그 全體像을 把握하기가 極難의 課題로 되어 있다. 그의 本大學 弟子 슈나이더(Erich Schneider)가 傳記에서 말했듯이 「슈페터야말로 經濟學과 社會科學分野의 實로 今世紀 稀有의 偉大한 學者」이며 「아마도 經濟學과 社會科學의 全分野를 完全히 터득해 냈고 또한 經

(4) M. Bronfenbrenner, "Schumpeter's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in *Schumpeterian Economics*, ed. by H. Frisch, 1982, p. 95.

(5) 1926년에 하이델베르크(Heidelberg)大學에서 行한 「指導力과 階級形成」이란 題目의 講演이라는 가, 1927년의 論文 「人種의 으로 同一한 環境 下의 社會階級論(Die sozialen Klassen in ethnisch homogener Milieu),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Vol. LVII 등은 이같은 現實參與의 영향에 의해 자극된 것이 아닌가 한다.

濟와 社會問題를 歷史的·分析的·哲學的 觀點에서 그 相互作用的 關聯裡에 把握할 수 있었던 極少數 中の 마지막 人物⁽⁷⁾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經濟學者로 論할 수 없는 難點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는 經濟學者로서의 슈페터가 經濟理論과 歷史的·社會學的 觀點을 어떻게 統合해 갔는가를 檢討하기 위해서 슈페터體系의 鑛脈 속에서 우선 經濟理論을 發掘하여 그 定性分析을 試圖하고 그것이 壯大한 體系 속에서 歷史的·社會學的 要因들과 맺어지는 化學的 作用의 內容을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슈페터는 『經濟發展의 理論』 첫머리에서 「社會事象은 하나의 統一의 現象이다. 이 커다란 흐름 속에서 經濟的 事實을 억지로 摘出해 낸다는 것은 研究者의 秩序를 세워가는 手腕이다. 우리가 어떤 事實을 經濟的이라고 稱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抽象이며, 이는 現實을 思考上 再現하는 技術的 必要에서 不得已 行하게 되는 수많은 抽象 中 最初의 것이다. 어떤 事實도 그 밑바닥의 根源까지 完全히 또는 純粹히 經濟的인 것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經濟理論의 抽象性과 社會現象의 統一性을 明示했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不拘하고 科學的 技法上 抽象的 理論分析의 不可避性과 그 正當性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은 抽象的 理論의 分析裝置를 保存하면서 社會現象의 統一性을 파악하려 했고 또 그것이 成功적이었던 데 슈페터體系의 特徵이 있다고 생각한다. 統合的인 社會思想家라고 하면 흔히 抽象的 經濟理論을 포기하거나 이에 批判的 立場으로 變身해 버리기 일췌인데⁽⁸⁾ 슈페터가 兩者 間의 矛盾 없이 體系를 形成한 秘密은 무엇인가? 그 內容과 背景 그리고 그 意義를 探求해 본다는 것은 오늘처럼 經濟學의 危機說이 亂舞하는 時期에 探索할 만한 充分한 價値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우선 그 自身이 手腕을 發揮해서 摘出하고 秩序 세운 抽象的 經濟理論의 特徵이 무엇인가를 밝힌 然後, 둘째로 이같은 抽象的 分析裝置를 內藏시킨 채 統一的 社會現象을 파악하는 歷史的·社會學的 接近方法을 檢討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靜態的 均衡理論—파라다임의 繼承

슈페터의 純粹經濟理論이 新古典派의 正統인 왈라스(Leon Walras)의 一般均衡模型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그는 왈라스야말로 모든 時代를 통해 가장 偉大한 經濟學者라고 하는 斷言을 서슴치 않았다. 市場經濟의 制度的 類型에 있어서 人口·欲望·資源·技術 등의 與件이 一定하다면 모든 財貨의 價格과 數量에 관한 確定的인 均衡值가 存在하고 또 이같은 均衡值의 體系(system)를 成立시키는 傾向이 現實의으로도 作用하

(7) Joseph A. Schumpeter: *Life and Work of a Great Social Scientist*, by E. Schneider, 1975, pp. vii-viii.

(8) 마르크스를 例外로 하면 大部分의 경우 그런 傾向이 있는 것 같다.

는 것이라고 본 것이 슈페터의 確信이었다.

뿐만 아니라 與件에 變化가 일어나면 이 衝擊에 對應해서 均衡值의 體系는 變化하지만 이 경우의 經濟體系의 反應裝置의 記述도 또한 均衡理論으로 可能하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므로 이 면에서 슈페터는 新古典派 經濟學의 比較靜學的 思考方式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슈페터는 新古典派의 paradigms를 全面的으로 受容·繼承했고 특히 알라스의 均衡에의 收束傾向의 存在가 保證된다는 點을 自律的 經濟理論의 「마그나 카르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同時代人으로서 經濟學界를 風靡한 케인즈革命의 盛大함에 對照해 볼 때 이른바 슈페터革命이라고 부를 만한 現象이 學界에 일어나지 않았던 理由를 찾을 수 있다. 經濟學의 學問的 性格과 歷史에서 슈페터는 限界革命以來 正統理論의 位置를 確立해 온 新古典派의 paradigms의 繼承者였지 이 側面에서 이른바 科學革命의 旗手는 決코 아니었던 것이다.

市場의 相互聯關과 모든 市場에서의 需給의 一致에 의한 經濟의 均衡이라는 基本的 paradigms는 알라스·파레토(Pareto)에 의해 啓發되었지만, 經濟理論에 대한 限界分析과 특히 微積分學의 活用이 契機가 되어 「쿠르노(Cournot)의 解」 같은 先驅의 業績을 爲始한 限界生産力理論이 알라스 以後에도 호텔링(Hotelling), 나이트(Knight), 바이너(Viner), 스티글러(Stigler), 프리드만(Friedman) 등의 系譜로 이어지면서 生産函數理論의 加一層의 進展을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豫算制約下의 效用極大化라는 假說로부터 消費者行動을 說明하려는 限界效用分析도 알라스 以後 마샬(Marshall)과 슬루츠키(Slutsky)에 이어 히스(Hicks), 발트(Wald), 알렌(Allen), 조제스큐·뢰젠(Georgescu-Roegen) 등으로 이어져 내려 오면서 新古典派의 微視理論의 內容을 豊富히 하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均衡의 存在는 最初의 알라스段階에서는 方程式의 數와 未知數의 數의 一致라는 形式으로 표현되었지만 一般均衡의 解의 存在證明이라든가 그 一意성과 安定성에 관한 嚴密한 證明은 1930年代와 1950年代에 히스, 사무엘슨(Samuelson), 에로우(Arrow), 드브루(Debreu) 등에 의한 作業으로 繼承 發展되어 온 것이다.

슈페터의 處女作 『理論經濟學의 本質과 主要內容』이 이같은 新古典派系譜의 알라스의 一般均衡狀態의 靜學的 分析方法을 非數學的 言語로 敘述한 業績임은 共知의 事實이며, 『經濟發展의 理論』에 있어서도 그 第一章은 發展理論의 基礎工事로서 均衡理論의 視角에서 出發하고 있다. 즉 經濟의 循環的 흐름(circular flow)에 있어서의 經濟活動은 모두가 本質的으로 反復的인 것으로서 既知의 慣行이라는 軌道를 따르고 있으며 經濟體系 內의 各 企業은 모두가 完全競爭狀態 下에 있기 때문에 賃金과 地代로 構成되어 있는 各 企業의 費用은 各

企業의 收入과 一致하고, 價格은 어디서나 平均費用과 同一해진다. 따라서 利潤은 제로(零)가 되고 利潤機會가 存在하지 않으며 利率도 零⁽¹⁰⁾이 되고 資源의 非自發的 失業이 없다. 企業과 마찬가지로 各家計도 모두가 完全히 長期的 均衡狀態에 있기 때문에 收入과 支出이 一致하고 豫算의 樣式을 現行의 狀況 下에서는 有利하게 變更할 수 없는 狀態로서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自動調整的 性質을 가진 經濟體系에 企業家에 의한 技術革新이 發生하여 經濟가 動態的으로 發展하고 그 發展過程에서 均衡이 破壞되고 革新이 群生하여 景氣가 循環되는 메카니즘을 分析한 『景氣循環論』에 있어서도 이 循環運動의 始發點을 어디까지나 均衡 또는 「均衡의 近傍」에 둬으로써 均衡→革新에 의한 「均衡破壞→革新의 效果消滅」에 의한 새로운 均衡狀態 形成이라는 方法을 固守하고 있다. 슈페터는 靜態的 均衡狀態는 말할 것도 없고 革新에 의한 動態的 發展過程을 內包하고 있는 景氣循環의 模型에 있어서도 戰爭이나 天災地變같은 非經濟的 要因에 의한 說明方法을 一切 排除하고 純粹한 經濟的 要因의 自體的 運動에 의해 惹起되는 經濟的 現象으로서 把握하려는 均衡論의 方法의 一貫性을 固守하였다.

그 뿐 아니라 슈페터는 『經濟發展의 理論』에서도 「우리가 意味하는 發展이라고 하는 것은 …『純粹經濟的인 것이며』… 經濟理論의 立場에서 原理的으로 重要한 것이다. …그것은 또 어떤 均衡狀態로 向해 가는 運動過程과는 달리 均衡狀態의 推移이다.」(p. 98) 또는 同書 第四版(1935) 序文에서 「나의 理論은 이 時代에 있어서 經濟變動에 관한 하나의 論理的으로 完結된 模型을 提供하려는 것」(p. xiv)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經濟理論의 純粹性과 統一性을 貫徹하려고 하였다.

經濟現象을 觀察함에 있어서 靜態的으로 보든 動態的으로 보든, 또는 循環的 흐름과 發展으로 보든 그 基本視角을 均衡에서 出發하고, 그 밑바닥의 根本까지 純粹히 經濟的인 現象이란 없는 것을 強調하면서도 可能한 限度까지 純粹經濟學的 抽象化를 貫徹하면서 經濟理論의 本質을 思索하던 슈페터의 面貌에서 우리는 經濟學的 科學性을 確信하고 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內生化한 채 솟아 있는 슈페터의 經濟學體系를 看取할 수 있는 것이다.

「經濟學的 科學性을 믿는 經濟學者에게 最大의 包負는 簡便한 몇 개의 變數를 연결시킨 간단한 몇 개의 方程式으로 經濟過程의 基本的 樣相을 모두 表示할 수 있는 간단한 模型을 만드는 데 成功했을 때 이루어진다.」⁽⁹⁾고 한 發言이라든가, 最近(1982) 發掘된 슈페터의

(9) "John Maynard Keynes: 1883-1946,"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XXXVI, 1946.

(10) 슈페터의 「靜態無利率說」에 관해서는 최근 사무엘슨이 램지(Ramsey)·솔로우(Solow)의 一部門 模型에 의해 論證한 바가 있다. P. Samuelson, "Schumpeter as an Economic Theorist," *Schumpeterian Economics*, ed. by H. Frisch, 1982, pp. 10-25.

論文「經濟學的危機」⁽¹¹⁾에서 「經濟學的論議의 不滿足한 狀態에 관한 우리의 診斷은, 經濟學者가 어떤 意味에서 相互 誤解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保有하고 있는 科學的 裝備가 不充分하기 때문이며」 「바꾸어 말하면 經濟學이 混沌狀態처럼 보이는 것은…經濟學者의 科學的 訓練의 不足에 의한 것이고」 「經濟學者의 科學的 裝備 중 理論的 訓練에 관한 部分에서 내가 意味하는 것은 數學만이 아니다. …將來의 經濟學者가 그 訓練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概念이나 定理를 構築해서 使用하는 方法이며 概念이나 定理로 事實을 捕捉하는 方法이다.」라고 한 發言을 볼 때, 그리고 슈페터가 社會科學의 思想史라 할 수 있는 壯大한 敘述을 初期에 試圖한 著作 『社會科學의 過去와 將來』(1915)에서 理論的인 近代社會科學의 誕生과 그 發展을 自然法을 母胎로 展開하면서 특히 19世紀의 歷史主義와의 對決을 거쳐 그것이 어떤 方向으로 進展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는 立場을 볼 때, 끝으로 遺稿出版이 된 『經濟分析의 歷史』를 經濟思想史와 嚴格히 區別하려고 했던 意圖나 同書 第4編 第7章의 均衡理論史部分의 比重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슈페터體系에 있어서 均衡理論을 中心으로 한 理論經濟學이 普遍科學으로서 確信되고 있었던 事實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理論經濟學의 普遍妥當性的 強調은 物理學이나 化學같은 自然科學에 學派가 없는 것처럼 그 自身の 學派를 形成하지 못하게 된 原因도 되었던 것이다.

壯大한 綜合體系로서의 슈페터體系 안에서 적어도 理論經濟學에 관한 限 그는 經濟學의 科學으로서의 普遍化的 必要性和 可能性을 믿고 있었다고 보겠다. 오늘날처럼 經濟學의 危機와 新古典派의 沒落이 소리 높여 들리고 있는 때에 이와 같은 슈페터의 經濟理論觀은 時代錯誤처럼 보일 것이지만 그의 이같은 立場에는 그 나름의 時代의 背景이 있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슈페터와 케인즈가 誕生한 1883年은 經濟學史上 오스트리아學派와 독일 歷史學派 사이의 方法論爭을 일으킨 멩거의 『社會科學 특히 經濟學의 方法에 관한 研究』가 發刊된 해였다. 經濟學의 研究에 理論的 接近이 主냐 歷史的 接近이 主냐 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不毛의 論爭이었고 그 結果 理論的 研究의 獨自性を 主張한 오스트리아學派에게 判定勝이 돌아간 것은 事實이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오스트리아學派의 異端兒 슈페터가 活動하기 시작한 1910年代까지도 독일 經濟學界에서는 如前히 歷史學派, 制度學派의 勢力이 強力해서 純粹理論의 研究는 微微한 상태였다. 經濟學書들은 古典派 理論이 아니면 歷史的·制度的 要素의 記述이 大部分이었고 純粹理論이 되면 곧 바로 應用分野로 넘어가는 實情이어서 限界革

(11) "The Crisis in Economics: Fifty Years Ago," *Th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Sept. 1982, pp. 1049-1059. 1982年에 하버드大學의 슈페터文庫에서 발굴된 未發表論文인데, 슈페터가 1931년 日本 東京의 一橋大學에서 行한 講演의 草稿로 推定되고 있다.

命 以來의 分析的 經濟理論의 綜合體系가 적어도 獨逸語圈에는 滿足스럽게 形成되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서 슈페터는 우선 理論經濟學의 本質이 무엇이며 그 對象과 方法이 무엇인가의 문제부터 着手하여, 精密理論이란, 어떤 假定에 立脚해서 經濟諸量 間의 關聯을 究明하는 抽象的 構成物이기 때문에 人間의 欲望이나 經濟行爲의 갖가지 動機에까지 들어갈 必要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理論經濟學은 哲學, 心理學, 社會學, 文化人類學같은 것과 아무런 關聯도 없다고 斷定하고, ⁽¹²⁾ 經濟現象 中 精密한 取扱이 許容되는 領域에 該當되는 것으로서 靜學的 交換理論을 選定하여 價格·價值·貨幣에 관한 諸問題가 그 對象이며 그 追求하는 바는 이들 所與의 經濟的 數量들 사이의 相互依存關係의 解明手段으로서의 均衡理論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¹³⁾ 그러나 슈페터體系는 단순히 왈라스의 一般均衡理論의 一系流로서만 處理될 수 없다는 點과 이른바 그의 巨大理論(grand theory)의 展開에 있어서 純粹理論經濟學的 要素를 拒否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그 머릿돌로 삼고 있다는 點에 슈페터理解上 難關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다.

오늘날처럼 主流經濟學의 危機論이 強한 때 이것은 우리 自身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슈페터는 이것을 어떻게 克服했는가를 評價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III. 動態的 發展理論—開放體系

그러면 슈페터는 純粹理論과 純粹하지 않은 理論을 어떻게 消化하여 巨大體系를 構築하게 되었나? 그는 『經濟分析的 歷史』의 到處에서 그리고 몇 개의 論文 속에서 分析技術과 비전(vision)을 區分하여 前者에 못지 않게 後者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가령 「社會의 經濟狀態에 관한 모든 包括的 『理論』은 두 가지의 相互 補完的인 것 하지만 本質的으로는 別個의 要素로 되어 있다. 첫째는 그 社會狀態의 根本的 特徵에 관한…理論家의 觀點이 있다. 이것을 理論家의 비전이라고 하자. 둘째는 理論家의 技術이 있다. 이것은 자기의 비전을 概念化하고 그것을 具體的인 命題 또는 『理論』으로 轉化시키기 위한 用具이다.」⁽¹⁴⁾라고 하여 비전과 分析用具의 重要性을 강조한다. 슈페터는 비전을 分析的 努力에 素材를 提供하는 「科學以前의 認識行爲(a prescientific cognitive act)」라고 定義하고 있다. 따라서 비전의 뒷받침

(12) 『理論經濟學의 本質と主要內容』(日譯) 第5部 第1章 參照.

(13) 슈페터가 멩거系統의 뵘·바베르크(Böhm-Bawerk)의 門下에서 生長한 오스트리아學派에서 出發했음에도 不拘하고 價值歸屬理論을 除外하면 오늘날 그를 오스트리아學派로 분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왈라스流의 一般均衡理論에 완전히 傾倒되었기 때문이다. 姜命圭, 「新오스트리아學派의 經濟思想의 系譜」, 『經濟史學』, 第4號, 1980.

(14) "Science and Ideolog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49.

이 없는 모델은 無意味할 뿐더러, 반대로 모델로 結實되지 않는 비전, 또한 이야기거리로 끝나는 멋대로의 解釋이 가능하다는 點에서 오히려 有害한 것이다. 슈페터體系가 이 비전과 모델을 理想的으로 調和시킨 것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어떠한 學問에 있어서도 비전이 없이는 새로운 出發은 不可能하다.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學問的 努力을 위한 새로운 素材를 먼저 定式化하거나 擁護하거나 攻擊하기 위한 그 어떤 것을 獲得한다. 이 過程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事實과 用具의 蓄積은 增大하고 또한 스스로 再活性化하는 것이다.」⁽¹⁵⁾

그러면 알라스의 一般均衡理論의 純粹模型에서 始發한 슈페터가 創出해 낸 비전은 무엇인가? 그 代表的인 것이 革新(innovation)理論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革新論의 비전이 透視해 낸 地平線에는, 첫째 經濟發展理論과 景氣循環理論같은 動學的 次元의 經濟問題 뿐만이 아니라, 둘째로는 資本主義論·社會主義論같은 歷史的 分析和 社會學的 分析까지 包括하는 體制論의 次元의 문제도 可視圈을 넓혀 射程圈內에 들게 하고 있다. 以下에서는 이 두 가지 領域의 問題群을 分析的 理論模型과 비전이라는 두 가지 次元에서 整理하기로 하자.

앞서도 지적했듯이 理論經濟學者 슈페터는 알라스體系의 純粹性和 統一性에 크게 魅了되었기 때문에 始終如一 단혀진 體系로서의 純粹經濟學的 樹立에의 강한 性向을 가지고 있었다. 主로 알라스에 準據한 靜態論的 考察이 中心이 되어 있는 『理論經濟學의 本質과 主要內容』이 이같은 性格임은 두 말할 것도 없지만, 論理的 分析的 出發點으로서의 經濟均衡의 狀態를 설명함과 동시에 一切의 外的 與件의 變動에 대한 經濟體系의 受動的 適應過程까지 밝히는 役割을 하는 均衡化過程의 理論으로서의 靜態論과, 企業家의 革新行動의 周期的 發生이나 그 움직임의 메카니즘을 밝히는 不均衡化過程의 理論으로서의 動態論의 두 가지 部分을 포함하는 第二著 『經濟發展의 理論』 속에서도 그가 純粹經濟學的 思考를 貫徹하려고 하고 있음을 到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슈페터의 純粹經濟學的 課題는 그 經濟發展의 비전을 概念化하여 理論模型을 구축함에 있지 經濟過程을 歷史的으로 記述하는 데 있지 않았으며 우선은 그 論理的 生成메카니즘을 밝히는 데 있었다. 그러나 純粹性和 統一性을 간직한 封鎖된 經濟學體系를 수립하려는 슈페터의 이같은 意圖에도 不拘하고 그의 「純粹」經濟學은 經濟諸量의 相關關係分析으로서의 알라스·릭스型의 純粹經濟學과는 判異한 性質의 것으로서 歷史的 觀點이 到處에 스며든 것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우선 슈페터經濟學的 基礎에 있는 經濟發展의 비전 그 자체에 附着되게 마련인 歷史性的 要素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비전은 革新企業家의 創造破壞的인 革新活動

(15) *Ibid.*, p. 359.

이 야기시키는 不均衡化過程과 非革新企業家の 이에 대한 受動的인 適應活動에 의한 靜態化내지 均衡化過程이라는 二面的인 過程으로서 進행하는 非連續的 發展過程이야말로 資本主義 經濟過程의 本質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또 指導者의 先導的 行動을 基軸으로 해서 展開되는 社會發展이라는 社會發展 一般에 관한 그의 比견의 經濟領域에의 適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經濟主體의 特殊한 行動類型이라고 하는 社會學的 要素를 資本主義라고 하는 歷史的 舞臺의 主人公으로서 焦點을 맞춘 魅力있는 比견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슈페터의 이같은 社會學的 分析은 실은 그가 독일 歷史學派를 批判하면서도 오히려 그로부터 배운 折半理論的이며 折半歷史的인 制度論的인 考察, 즉 制度化된 事實에 관한 理論的이며 同時에 歷史的이기도 한 分析의 性格인 것이다.⁽¹⁶⁾ 앞서도 지적한 經濟學研究에서 理論的 接近과 歷史的 接近의 優劣을 둘러싼 方法論爭의 終點에 雙方의 學統 속에서 베버(Max Weber)와 슈페터라는 위대한 두 사람의 異端이 나타나 相對方의 立場을 잘 理解하는 方法論의 主張을 함으로써 이 論爭의 終幕을 告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注目할 需要가 있는 것이다. 즉 베버가 歷史家의 立場에서 理論的 獨自性을 인정하면서 理論과 歷史의 綜合的 社會科學體系를 試圖했듯이 슈페터는 理論家의 立場에서 이같은 接近을 試圖한 社會科學者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슈페터의 立場에서 純粹理論과 歷史를 接合시키는 接近方法은 무엇인가? 우선 理論經濟學의 本質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對象과 方法의 問題를 다룬 『理論經濟學의 本質과 主要內容』에서 精密理論이란 어떤 假說에 입각하여 經濟諸量間의 相互依存關係를 解明하는 均衡理論임을 明示하고 있음은 前記한 바와 같다. 따라서 精密한 純粹經濟理論은 靜學에 있어서만 可能하고 餘他的 諸問題는 모두 「動學」에 속하는 것으로 우선은 徹底히 排除된다. 그 결과 종래 經濟學에서 다루어져 온 많은 問題들이 純粹理論의 「與件」으로 취급되어 理論經濟學에서 배제되고 經濟理論은 단순히 諸數量間의 運動法則을 解明하는 「交換의 論理學」으로 전환되며 殘餘의 모든 問題는 이른바 「動學」의 영역으로 넘김으로써 순수이론의 철저한 淨化作業을 貫徹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靜學理論의 淨化에 의해 除去된 問題群에 관해서 슈페터는 前著末尾의 「理論經濟學의 發展可能性」(第5部 第5章)에서 아래와 같은 構想을 提示하고 있다. 즉 이 모든 것은 動學의 對象이 되는데 그 첫째의 課題는 靜學體系에서 排除된 經濟事象 중 資本形成・資本利子・企業家利潤・景氣循環 등이며 이것들은 靜學이 處理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의 動學의 問題群은 靜學에서 考慮되지 않았던 새로운 契機내지 前提를 導入함으로써 이

(16) 이와 같은 性格은 “Gustav von Schmoller und die Probleme von heute,” *Schmollers Jahrbuch*, Vol. L, 1926에 잘 露出되어 있다.

를 擴大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諸事實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經濟上의 大變動과 比較的 長期間」, 「世界市場을 둘러싼 大鬭爭」, 「社會階級の 存在 및 生成의 經濟的 側面」, 「靜學이 설명하는 以外的 수많은 종류의 價格形成」, 「其他의 社會的·倫理的·國民的인 諸影響」 등이 그것이다. (17)

이같은 項目들을 보면 거기에는 景氣變動·經濟發展·帝國主義·社會階級·獨占=트러스트의 價格形成·國民精神·人間行動의 動機賦與樣式으로서의 價値體系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看取할 수 있다. 이들 問題群에는 通常의 經濟學의 범위를 벗어난 經濟社會學에 속하는 諸問題가 포함되며 슈페터는 이미 初期段階의 動學的 課題 속에 經濟社會學의 考案을 豫定했고 이같은 研究를 實踐해갔던 것이다.

그러나 슈페터는 위에 열거한 動學的 問題群의 거의 全部가 「經濟發展 一般」의 문제와 聯關된다는 것을 透視하고 있었다. 따라서 슈페터의 動學的 經濟理論의 核心은 一次的으로 經濟發展의 理論에 集中되었던 것이며 이를 위한 比喩가 形成되어 있었다.

슈페터의 發展理論의 特色은 市場機構의 純粹理論에 企業家行動=革新에 관한 새 假說을 도입함으로써 動態의 競爭經濟의 作用을 定式化하려는 데 있었다. 이리하여 餘他的 變動理論이 經濟變動을 與件의 變化내지 體系外的 變化에 의해 誘發된 過程으로 보고 이들 要因의 解明에 重點을 두는 데 反하여 슈페터는 企業家를 主軸으로 하는 發展메카니즘의 內在의 要因을 分析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發展메카니즘의 分析에 의해 靜態條件에서는 明示的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企業利潤·資本·信用·利子 및 景氣循環같은 諸現象이 表出되고 그 機能을 發揮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企業家革新에 입각한 經濟의 自生的 發展過程에 있어서 企業家의 革新投資를 可能하게 하는 資本과 信用의 役割, 이것이 성공되었을 경우 企業家의 手中에 들어가는 企業家利潤, 그 派生的 現象으로서의 利子, 그리고 革新發生의 群生성과 非連續性에 의한 景氣循環의 發生 등 모든 發展過程에 수반되는 諸要素와 그 歸結을 統一的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經濟發展의 理論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市場機構의 기반 위에서 그 作用에 수반되어 전개되는 새로운 現象을 統一된 原理와 方法으로 설명하려는 純粹動學理論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分明히 靜學體系와는 別個의 次元의 理論構造를 이루지만 또 同時에 後者가 前者의 建築을 위한 基礎工事が 되고 있다는 關係를 看過할 수 없다.

IV. 歷史的 動學理論의 體系

그러나 여기서 注目할 事實은 위와 같은 動學的 構築 위에 또 다른 次元의 素材對象을 加

(17) 『理論經濟學の本質と主要內容』(日譯), 第5部 第5章 參照.

그해 간 것이 슈페터體系의 眞像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이 體系는 靜學의 基礎 위에 動學의 多重·多元的인 素材對象을 內生化시켜서 전개해 간 文字 그대로의 開放體系인 것이다.

즉 슈페터가 구상한 靜學과 動學이 단순히 二元的인 別個의 體系가 아니라, 發展理論에서 그가 發展을 起動시키는 諸要因을 靜學에 대해서는 「與件」으로 간주되던 領域에서 찾아내서 이것들을 經濟理論에 接合시키기 위한 定式化를 시도한 것으로서, 이는 與件내지 攪亂要因의 「一般理論」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具體的인 歷史發展을 해명하기 위한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편에 發展메카니즘을 記述하는 分析的 性格을 保有하는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利潤·利子·資本·信用같은 制度的 本質을 밝히는 制度的 模型을 包括하는 社會學的 性格이 강하게 들어 있는 體系를 이룬다. 그러나 슈페터가 한 걸음 더 나아가 資本主義進化라는 歷史的 過程을 分析하려 할 때는 이 理論에서 所與로 된 景氣循環의 模型을 더 한층 擴張하여 보다 더 現實에 접근하기 위해 여기에 關聯된 一切의 社會文化的·制度的 與件을 도입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資本主義를 단순한 生産的 管理체계내지 所有·分配의 經濟體系로서 뿐만이 아니라 부르조아의인 人間類型이나 生活樣式으로 이룩된 全體의 文化體系로서 파악하려 한다면, 設令 資本主義秩序의 經濟的 側面만을 문제삼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버의 말대로 그 分析은 狹義의 「經濟的」현상 以外에 「經濟에 關係되는 現象」과 「經濟적으로 制約된 現象」까지 포섭하여야 되기 때문에⁽¹⁸⁾ 결국은 文化的 事實에까지 波及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슈페터體系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때 이같이 多次元의 世界에 대해 어떤 비견을 가지고 一貫된 體系를 형성하는가 하는 接近方法일 것이다.

純粹理論分析에서 與件의 設定은 일반적으로 分析의 便宜上 不得已 行하게 되는 것으로서 純粹靜學理論은 人口·欲望·技術·社會制度같은 것을 與件으로 삼고 理論的 分析은 이 點에 도달되면 停止된다. 純粹動學理論으로서의 發展理論에서는 이들 與件중 일부에 관한 一般的 作用方式을 定式化했을 뿐 그 具體的 內容에까지 進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資本主義進化의 歷史的 現實을 해명하려 한다면 당연히 長期에 걸친 大規模의 變動이 分析對象이 되므로 여기서는 위의 與件들을 보다 具體的으로 定式化하여 體系內에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經濟發展의 作用機構 뿐만 아니라 그 發展의 具體的 成果를 문제삼고자 할 때 슈페터는 經濟機構를 運營하는 經濟主體로부터 그 活力을 끌어내는 動機, 利潤原理와 그것을 지탱하는 社會的 價值體系, 稀少한 人材인 企業家階層의 補充과 配分, 階級間의 移動과

(18)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1922.

指導者(企業家)의 社會的 選擇·淘汰의 方式 등을 둘러싼 制度的 諸要因 등이 모두를 여기에 關聯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考察 범위에 넣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攪亂原因의 理論 또는 與件理論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¹⁹⁾ 이에 의해 비로소 經濟過程과 社會的 過程의 關聯을 分析的으로 記述하고 兩者의 統合可能性을 期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숨페터가 일찍이 動學의 問題群이라고 豫告했던 計劃에 따라 經濟社會學의 研究를 해 낸 實績으로는 前揭한 바 있는 『租稅國家의 危機』, 『帝國主義의 社會學』, 『社會階級論』(1927), 『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와 論文 「社會主義로의 前進」⁽²⁰⁾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숨페터의 社會學의 動態研究들이 一般이 생각하는 바처럼 단순히 經濟學으로부터의 脫出은 아니라는 點을 銘心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숨페터는 『理論經濟學의 本質과 主要內容』에서 純粹理論의 淨化作用으로 追放해버린 諸問題를 다시금 與件理論이라는 형태로서, 擴大된 經濟體系 속에 포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숨페터의 새 經濟學은 通常의인 理論經濟學과는 다른 變質된 經濟學體系를 이루게 됨으로써 在來에 所與로 假定되어 있던 一切의 要因을 이제는 단순한 與件이 아니라 그 本來의 研究對象으로 內生化시키는 開放體系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歷史的 社會的 過程의 分析이 獨自의 主題가 되고 經濟理論은 물론 不可欠의 比重은 있으나 하나의 分析手段을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는 巨大體系 속의 要素가 되는 것이다.

가령 資本主義進化의 特殊形態를 분석하여 景氣循環이라는 資本主義의 「心臟의 鼓動」을 解明하려던 『景氣循環論』에서 숨페터는 「우리가 理解하고자 하는 것은 歷史的 時間에 있어서의 經濟變動이기 때문에 當국의 目的은…단순한 恐慌이나 循環 또는 波動이 아니라 모든 側面에서의 經濟過程에 관한 推論된 (概念的으로 明白히 된) 歷史이며, 이에 대해서 理論은 약간의 用具와 圖式을, 統計는 단순히 資料의 一部를 提供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²¹⁾고 말함으로써 資本主義體制의 經濟過程分析에 있어서조차 理論의 限界를 明示的으로 밝히고 있다. 물론 여기서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대목은 숨페터體系에서 資本主義分析이 단순한 歷史的 分析만이 아닌, 이같은 歷史的 時間上의 經濟變動을 「理論的으로 概念化된 歷史」⁽²²⁾로서 파악하려 함으로써 歷史的 分析과 理論的 分析의 接合을 試圖했지 前者를 위해 後者를 포기하는 立場은 아니었다는 點이다.⁽²³⁾

(19) J.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1848, Book I.

(20) "March into Socialism",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XL, 1950, pp. 446-456.

(21) *Business Cycles: A Theoretical, Histor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Capitalist Process*, 1939, Vol. I, p. 320.

(22) *Ibid.*, p. 220.

(23) *Ibid.*, Chapter II 참조.

V. 資本主義의 運命—體制變革의 內在的 條件

슈페터가 資本主義의 經濟發展에 관한 壯大한 비전에 依據하여 이를 理論的 實證的으로 論破할 때 主軸으로 삼은 企業家革新概念의 意義는 이것을 思想의 中核으로 해서 資本主義 社會의 모든 要素를 再構成하는 構想力의 擴大에 있었던 것이다. 그가 平生에 걸쳐 關心을 가졌던 社會主義問題도 이같은 資本主義分析의 延長線上에 內在된 問題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社會主義란 資本主義의 將來이며 資本主義의 產物이었던 것이다.

슈페터의 社會主義에 관한 體制論的 關心은, 물론 『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에 詳論되어 있지만, 資本主義 經濟體制的 政府擴大過程을 論破한 『租稅國家의 危機』와 論文 「今日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可能性」⁽²⁴⁾에서 이미 그가 독일 社會民主黨政權에 參與했던 經驗的 知識을 背景으로 表明해 왔기 때문에 「社會主義의 問題에 관한 거의 40년에 걸친 思索·觀察·研究의 大部分을 읽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려는 努力의 所產」⁽²⁵⁾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빈(Wien)大學 在學中(1901~5) 바우어(O. Bauer)나 힐퍼딩(R. Hilferding)을 위시한 社會主義者들과의 交友關係가 이에 관한 關心의 始發이 되어 그의 死亡 전 날에 絕筆로 남긴 論文 「社會主義로의 前進」에 이르기까지 실로 50平生 이 문제는 슈페터의 腦裡를 떠나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社會主義論의 命題는 「資本主義體制的 現實 및 將來의 成果는 資本主義가 經濟的 失敗의 重壓 때문에 崩壞한다는 생각을 否定하는 것이고 오히려 資本主義의 非常한 成功 바로 그것이 이를 擁護하고 있는 社會制度를 진복하여 資本主義가 이미 生存할 수 없는 狀態, 따라서 資本主義의 法定相續人으로서 社會主義를 강력히 指定하는 바와 같은 狀態를 만들어 낸다.」⁽²⁶⁾고 한 表現 속에 要約되어 있다.

그러면 슈페터의 平生의 課題의 하나였던 社會主義論의 內容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의 이 問題에 관한 接近方法을 보기로 하자.

슈페터의 社會主義論의 첫번째 特徵은 마르크스(Marx)와 마찬가지로 社會主義로의 體制變革의 論理를 資本主義의 經濟發展 그 自體 속에서 찾아내어 社會主義의 到來를 不可避하다고 본 點에 있다.

體制變革의 論理를 資本主義에 內在하는 것으로 친다면 마르크스든 슈페터든, 資本主義

(24) "Sozialistische Möglichkeiten von heute,"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Vol. XLVIII, 1920.

(25)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942, p. xiii.

(26) *Ibid.*, p. 61.

分析은 狹義의 經濟的 테두리를 넘는 것이어야만 했다. 슈페터가 資本主義라고 할 때는 단순히 市場機構나 私有財産制나 信用創出機構같은 經濟制度의 장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政治制度나 階級構造에서 思考方式, 價値體系, 生活態度에까지 이르는 하나의 文明이었던 것이다. 그의 資本主義經濟의 發展理論은 이같은 總體의 運動을 해명하는 것이었고, 이 理論에 있어서 基軸的 役割을 담당하는 企業家革新이라는 개념도 이 總體를 지탱할 만한 比重이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되 있기 때문에, 슈페터에게 있어서는 革新을 담당하는 企業家의 成功이 社會의 階級構成을 交替시키고 이 指導的 부르조아階層의 影響力을 통해서 文化的 社會的 要因의 特徵이 설명되는 것이다.

그러나 資本主義의 發展 그 自體가 社會主義를 不可避的으로 탄생시킨다는 슈페터의 主張에 관해서는 몇가지 注意를 要하는 點이 있다. 첫째 그것은 社會主義의 事實上的 到來를 豫言한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 속에 現存하는 경향이 完全히 作用 完了해 버린다면 資本主義가 붕괴하고 社會主義가 일어나는 傾向이 있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둘째 원래 社會主義는 理念的인 體制像일 경우가 많은데 슈페터의 主張은 社會主義가 바람직하다는 價値判斷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분명히 個人的으로는 資本主義文明을 사랑했고 그의 社會主義論은 科學的인 假說에 지나지 않는다. 세째 그러므로 社會主義로의 移行은 決定論的으로 運命지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 外生的인 事情이 移行을 오랜동안 阻止할 수도 있고 또 主體的인 選擇의 餘地도 있는 것으로 알았다. 社會主義의 到來를 不可避하다고 한 그의 見解가 敗北主義라고 하는 批判에 대해 슈페터는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報告는 결코 敗北主義的인 아니다. 이 報告를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만이 敗背主義的으로 될 수 있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가령 이 경우 船員은 앉아서 술을 마실 수도 있다. 그러나 배를 救出하기 위해 펌프로 突進할 수도 있는 것이다。」⁽²⁷⁾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러나 立場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슈페터理論의 比重은 設令 問題의 判定에는 「一世紀인들 短期」⁽²⁸⁾일 만큼 長時間이 걸리고 紆餘曲折이 있을지언정 結局은 事物과 精神, 手段과 意思가 自動的으로 社會主義에 有利한 方向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강한 底流를 指示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로도 推論이 可能하다. 즉 「經濟的·社會的 事物은 그 自身の 모멘텀에 의해 움직인다. 그 결과 생기는 狀態는 個人이나 集團이 무엇을 行하든 무엇을 바라든 그들을 特定한 方式으로 行動하도록 強制한다. 이는 그들의 選擇의 自由를 빼앗음으로써가 아니라 선택을 하는 心的 狀態를 형성하면서 選擇의 可能性의 目錄(list)

(27) *Ibid.*, p. xi.

(28) *Ibid.*, p. 163.

를 좁힘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²⁹⁾

이와 같은 뜻에서 숨페터는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로의 體制移行의 內在的 傾向을 叙述하려 했던 것이고 그것은 또 資本主義의 發展의 極限에 社會主義를 登場시킨다는 點에서 發展段階說의 思考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숨페터의 理論構造는 이같은 段階說의 發想 때문에 後進國이 生産力을 擴大할 目的으로 理念的으로 資本主義에 대신할 戰略으로서 社會主義體制를 擇한다고 하는 現實的 케이스에는 妥當性이 없는 말이 된다. 現實에는 未成熟狀態의 社會主義化가 많지만 그의 論議는 先進資本主義國의 성숙된 將來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숨페터는 理論分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體制問題를 다룸에 있어서도 그 自身の 價値理念이나 價値判斷을 介入시키지 않고 있으며, 그러나 이것은 社會 自體가 價値理念의 選擇이나 體制的 選好를 가졌다고 하는 것과는 全然 別個의 문제로 보았던 것이다.

숨페터의 社會主義論의 두번째 特徵은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로의 移行을 초래하는 原因에 관한 逆說的 見解이다. 經濟的 失敗 때문에 資本主義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란한 經濟的 成功 때문에 衰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資本主義는 利潤追求를 誘因으로 하는 革新을 통해서 警歎할 만한 經濟發展을 이룩했다. 마르크스와는 달리 20世紀를 볼 수 있었던 숨페터는 이 經濟發展이 勞働者나 大衆의 生活水準을 비약적으로 上昇시켰음을 알고 있었다. 마르크스가 豫測한 바같은 勞働者階級の 貧困化와 階級鬭爭의 激化는 일어나지 않았다. 또 長期停滯論者가 말하는 것과 같은 投資機會의 消滅도 事實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革新에 의해 惹起되는 景氣循環은 好況과 不況의 波動을 발생시키지만 그것은 마치 心臟의 鼓動이나 潮水의 干滿과 같은 것으로서 資本主義는 本來 循環的 安定性이 갖추어져 있는 體制이기 때문에 長期的으로든 短期的으로든 그 自體가 機能不全이 될 素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같은 經濟的 成功과 豐饒의 實現의 結果 社會的·文化的·政治的 側面에서 資本主義에 敵對的인 要因이 發生하고 이 때문에 資本主義의 原動力이 損傷되어 資本主義가 衰退한다고 숨페터는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資本主義의 成功에 의한 資本主義의 崩壞라는 숨페터의 命題는 一見 逆說的의이다. 이것은 資本主義의 經濟的 成功이 非經濟的 側面을 통해서 資本主義의 經濟的 成果(performance)에 마이너스의 影響을 미치고 이 때문에 資本主義의 衰退가 招來된다는 것으로서, 결국은 資本主義의 崩壞는 直接的으로는 經濟的 機能의 活力을 喪失했기 때문에 일

(29) *Ibid.*, p. 129-30.

어난다는 解析이 可能한 論法인 것이다.

그러므로 資本主義의 成功이 그 失敗를 가져온다는 關係를 說明하는 非經濟的 要因을 통해서 設定하고 있는데 이 말은 資本主義의 經濟的 메카니즘은 그 自體로서는 成果가 惡化될 性質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資本主義의 經濟메카니즘은 內在的으로 安定的이며 그것은 本來 生命力이 넘쳐 흐르고, 「産業革命의 분위기 즉 進步의 분위기야말로 資本主義가 生存하는 唯一의 분위기」⁽³⁰⁾라고 하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資本主義의 失敗라고 判定되고 있는 1930年代의 大不況에 관한 說明에 있어서조차 周波가 相異한 세가지 循環曲線의 밑 部分이 重複되었다는 偶然⁽³¹⁾이나 銀行制度의 失敗같은 外生的 要因에 귀착시키고 또한 本來 作用했어야 될 不況으로부터의 回復도 反資本主義的인 뉴 딜(New Deal)政策 때문에 오히려 阻害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說明의 論議에 대해서는, 첫째 資本主義經濟 自體가 不安定性을 가질 可能性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點과, 둘째 資本主義의 成功이 非經濟的 要因에 대해서 플러스 作用을 할 可能性을 배제하고 있으며, 세째는 資本主義의 失敗가 非經濟的 要因의 介入을 促進할 可能性을 看過할 危險을 내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疑問을 남게 하고 있다.

그러나 1942年の 『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에서 전개된 說明의 資本主義崩壞論이 실은 이미 1928年の 論文 「資本主義의 不安定性」에서 論述되었던 것을 본다면 說明의 大不況 以前에 繁榮의 頂點에서 資本主義의 成功으로 因한 崩壞論을 제시했던 것으로서 이는 說明의 體制移行理論은 資本主義가 危機에 直面했을 때의 經驗的 事實과는 無關하게 構想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經濟發展의 理論』에서 전개된 資本主義的 經濟發展을 擴大된 非經濟的 視野에까지 適用하여 資本主義體制變革의 理論을 전개한 說明體系의 一貫性和 統一性を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여기서 說明의 社會主義論의 主題의 內容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社會主義化를 惹起시키는 要因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資本主義가 極限的으로 發展할 때 (1) 革新이 日常化되고 自動化되어 組織化된 結果로 發展은 이른바 官僚機構의 專門家가 專擔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革新을 擔當하는 企業家의 機能과 그 社會的 地位가 상실된다. (2) 合理性이 進展되기 때문에 道德이나 規律, 慣習, 制度의 面에서 資本主義를 지명해 온 前資本主義的 要素가 소멸된다. (3) 資本主義에 대해서 批判的이고 敵對的인 知識階級이 발전한다. (3) 資本主義의 價値觀이 無力해지고 平等

(30) *Ibid.*, Chapter XV, F.

(31) *Business Cycles*, Vol. 1, p. 213.

化·社會保障·政府介入·餘暇같은 것을 選好하는 思考가 強化된다. 以上이 資本主義의 自己崩壞를 가져오고 社會主義에로의 移行을 促進하는 契機가 되는 非經濟的 要因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슈페터가 定義하는 社會主義란 「生産手段이 統制되어 무엇을 生産하고 어떻게 生産하며 누가 무엇을 獲得하는가의 決定이 私的 所有者와 私的 經營에 의한 企業에 의한 것이 아니라 公共當局에 의해 行해지는 社會機構」⁽³²⁾를 말한다. 따라서 社會主義에로의 「移行」은 經濟活動의 比重이 漸次 私的 領域으로부터 公的 領域으로 옮겨짐을 뜻한다. 슈페터가 未來에 想定한 社會主義는 분명히 中央集權의 社會主義임에 틀림 없으나 그것은 이른바 資本主義의 經濟發展의 最高의 段階로서의 社會主義였지 蘇聯이나 東歐처럼 資本主義發展의 未成熟段階에서 實現된 것을 가르키지는 않았다.

한편, 資本主義諸國의 現實의 事態는 中央集權의 社會主義의 方向으로 기울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分明하다. 現實의 社會主義諸國의 狀態가 社會主義에 대한 幻滅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逆轉이 可能한가의 如否를 차치하고라도 社會主義에의 制動이 걸린 것이 사실이다. 다만 社會의 經濟的 決定에 있어서 公共部門의 比重이 증대하고 混合經濟와 福祉國家같은 體制가 나타난다는 뜻에서는 슈페터의 診斷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위에 列擧한 要因들이 資本主義의 經濟成長의 成功에 의한 豊饒가 實現된 結果 作用한 것이고 이는 企業의 利潤追求活動에 敵對의이며 資本主義의 活力을 憔悴化시키는 것도 事實이어서, 오늘날 이른바 先進國病이라고 하는 事態의 相當 部分이 슈페터에 의해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 二次大戰 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資本主義가 如前히 經濟的 活動力과 適應力을 發揮해 온 것도 亦是 事實이다. 슈페터가 否定的으로 提示한, 革新이 日常化되어 企業家機能이 喪失된다는 要因에 관해서 확실히 技術革新의 擔當이 個人에게서 組織으로 移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政府統制의 영역 外에 市場經濟가 殘存하는 限, 그리고 近者에는 小規模의 冒險企業(venture capital)에 의한 尖端產業의 餘地가 남아 있는 限, 組織化 自體가 革新의 阻害要因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革新은 이에 의해 大規模化되어 國際的 革新競爭이 活潑化되는 傾向도 없지 않다고 볼 때 이 面에서의 過大評價는 再考를 要하는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 뿐 아니라 위에 열거한 敵對的인 知識階級の 作用은 言論 등을 통해 資本主義秩序의 道德的 否認을 가져오고 資本主義에 대한 全體的인 敵對的 環境을 造成한다는 것인데, 逆으로 「작은 政府論」이나 資本主義經濟의 活性化를 부르짖고 그 理論的 主張을 하는 것도

(3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p. 415.

知識階級이라는 點이 着過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이 슐페터의 體制移行論은 하나의 傾向을 浮刻시키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現實接近에는 一定한 限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見解가 重要的 動向을 捕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다. 資本主義의 經濟的 메카니즘은 그 自體로서는 훌륭히 作動하지만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抽象的 經濟人이 아니라 政治的 社會的 文化關係 속에 놓여져 있는 人間이다. 이와 같은 生活樣式을 갖는 人間이 經濟的 豊裕 속에서 變容해갈 때 資本主義機構를 움직이는 데는 不適한 要素가 增大한다. 人間이 社會의 主人公인 限 社會는 資本主義의 外皮로부터 脫皮할 수도 있는 것이다.

現實이 이같은 脫皮過程을 一方的으로 着着 進行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같은 傾向이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對抗力이 強化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그재그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지는 解釋上 문제가 있다. 그러나 슐페터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떻게 되든 相關 없는 일이었다. 資本主義의 成長을 維持한다거나 私有財產이나 市場機構가 남아 있다고 해서 資本主義가 存續하고 維持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資本主義는 하나의 包括的인 文明이지 經濟的 裝置가 아니다. 利潤을 追求하는 個人的 天才가 활약하고 人格性이 發揮되며 冒險의 로맨스에 充滿한 부르조아階級の 社會단이 資本主義이 지 大企業이나 政府같은 巨大組織에 의해 支配되고 平均的인 中間層에 의해 메워지며 利潤이 社會的 批判이나 社會的 再分配의 對象이 되어 그 자체가 管理賃金化되는 社會는 벌써 資本主義가 아닌 것이다.

VI. 結 語

슐페터의 世界는 二重의 意味에서 綜合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理論·歷史·統計의 複合이라는 뜻에서이며 둘째는 靜態와 動態의 複合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 複合的 綜合의 울 속에서 徹頭徹尾 經濟理論家이려고 하는 그의 意思와 經濟에는 境界같은 것이 없다고 하는 事實의 認識의 사이의 不協和를 보는 것 같다. 이 不協和를 克服하려던 슐페터의 試圖는 물론 完成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도 적어도 今世紀 經濟學者 중 거의 唯一하게 成功한 例가 아닌가 한다. 經濟가 실로 政治나 文化에 이르기까지 徹底히 浸透되고 있는 現代社會를 理解함에 있어서 슐페터體系는 하나의 知的 試金石이 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資本主義의 動態를 解明하고 그 運命을 診斷하는 데에 學問的 關心을 集中했던 슐페터가 畢生의 라이벌이던 케인즈를 批判한 論點을 中心으로 해서 이 글의 結論을 맺기로 하자.

첫째로 슈페터는 科學으로서의 經濟理論과 實踐으로서의 經濟政策論議를 峻別하여 어떠한 科學도 直接的으로 實踐의 目的을 추구하려는 霧圍氣에서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實踐의 입장에서는 科學的 命題 以外的 價値判斷이 介入될 뿐 아니라 科學的 命題 自體를 道德的으로 否定하는 價値判斷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經濟學은 歷史的으로 現實問題의 論議에서 나왔지만 經濟學의 進歩는 政治나 倫理로부터의 脫却에 의해 비로소 可能하게 되어 온 사실을 슈페터는 廣範한 學說史研究를 통해서 確信하고 있었던 것이다. 1936년에 케인즈의 『一般理論』이 나왔을 때 슈페터는 케인즈의 試圖가 限定된 歷史的 狀況 下의 切迫한 現實問題에 밖에는 意味가 없는 政策論을 一般的 科學的 眞理를 假裝해서 提出했다고 보면서 그것은 「政治的 傾向에 따라서 一時的으로는 世間의 人氣를 얻지만 조만간 反動을 일으켜 그 어느 쪽도 科學과는 아무런 相關이 없는 것」이라고 酷評하고 있다. 이 評價는 理論과 實踐의 混同으로 經濟學의 信用이 의문시되는 듯한 昨今의 危機的 狀況이라든가 往年의 케인즈政策의 勝利와 비교한 今日의 케인즈派와 反케인즈派 사이의 論爭의 性質을 洞察하고 있는 것 같다.

둘째로 슈페터는 케인즈가 長期의 문제를 무시하고 短期的 觀點에서 現實問題를 解明하는 理論을 구축하려던 態度를 嘲笑했다. 슈페터의 發展과 循環理論에 의하면 資本主義는 企業家의 革新을 原動力으로 하는 끊임 없는 變化의 長期過程이며 그와 같은 動態는 갖가지의 循環의 波動을 수반하면서 全體로서 運動을 계속한다. 不況과 好況의 물결은 마치 心臟의 鼓動이나 干滿의 差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全體의 運動의 메카니즘을 모르면서 一時的인 好況이나 不況을 調節하려고 하는 (케인즈의 投資誘因缺如論같은) 短期的 政策은 無意味한 것으로 보았다.

셋째로 케인즈의 이와 같은 政策論的 志向과 短期的 觀點에 입각한 總需要管理政策은 近視眼的이고 오히려 資本主義 메카니즘을 阻害할 危險이 있다고 비판한다. 케인즈는 資本主義經濟가 自動調節機構를 상실했기 때문에 放置한다면 長期的 停滯에 빠진다는 비전에 입각해서 資本主義 經濟의 救濟를 여기에서 求했던 것이다. 그러나 슈페터는 알라스의 均衡體系(靜態)와 經濟體系內部에서 발생하는 發展過程의 不均衡體系(動態)가 景氣循環의 運動속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爆發的인 붐이 無限히 계속되는 일이 없거니와 大恐慌的인 슬럼프가 無限히 계속되는 일도 없고, 經濟는 循環을 反復하면서 安定性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케인즈의 經濟介入은 高度의 內在的 安定性을 가진 資本主義 經濟에 오히려 有害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면 슈페터는 알라스的인 市場均衡調整能力을 過信하는 保守的 經濟秩序觀의 所

有者임에 틀림 없다. 오늘날의 反케인즈派의 潮流에 드는 프리드만(Friedman)이나 하이에크(Hayek)같은 新自由主義者들과 立場이 酷似해진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슈페터에게 있어서 케인즈派와 反케인즈派 間의 對立은 科學의 水準과는 無關한 政治的 價値判斷이 左側에서 右側으로 反動的으로 흔들리는 것에 不過한 것이다. 슈페터의 資本主義論은 이같은 次元을 超越한 데 있는 것으로서, 人爲的인 政策이 어떠한지 간에 資本主義에는 內在的인 메카니즘이 있고 人間이 主體的으로 擇하는 政策조차도 이 메카니즘 속의 하나의 要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프리드만이나 하이에크같은 實踐的 保守主義者들의 思想은 一世를 風靡했던 케인즈政策의 有效性이 상실된 것을 奇貨로, 케인즈에 의해 論破되었던 貨幣數量說이나 完全雇傭理論 또는 自由放任主義의 比重을 回復시켜 케인즈政策에 의한 政府介入을 배제한다면 資本主義라는 裝置는 再活性化될 것이라는 確信을 갖는 것 같다. 말하자면 이는 經濟體制에 관한 可逆性을 믿는 셈이다. 슈페터는 이와 判異하여 資本主義는 歷史的 全體的인 過程이지 技術的인 機械裝置가 아니기 때문에 時計 바늘을 元位置로 되돌리려는 것은 大勢의 奔流에 부딪치는 泡沫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이다.

政策變數를 分析모델에 대해 外生化시켜서 나타내는 것이 政策論이나 實踐論의 立場이다. 그러나 슈페터는 社會經濟에 대한 包括的인 認識을 試圖했기 때문에 이 立場에서 볼 때 社會는 그 自體의 모멘텀에 의해 움직이고 따라서 政策이나 實踐조차 社會모델 속에 內生化되어 버리는 것이다. 世人이 슈페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必竟 政策論을 超越한 그의 이같은 絶對的 達觀者의 立場 때문일 것이다.⁽³³⁾

參 考 文 獻

- 李相球譯, 『民主主義의 理論』, 1953.
 李相球譯, 『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 1977.
 李相球著, 『슈페터資本主義論研究』, 1982.
 金指基編譯, 『シユムペーター經濟學의 體系』, 1978.
 金指基著, 『J.A. シユムペーター의 經濟學』, 1979.

(33) 물론 슈페터의 體系와 比견에 立脚한 政策的 含意를 導出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例로 다음 論著들을 參照할 수 있다. W.F. Stolper, "Aspects of Schumpeter's Theory of Evolution," *Schumpeterian Economics*, ed. by H. Frisch, pp. 28-47. 또는 全般的으로 批判的이면서도 部分的인 肯定論으로 政策的 含意를 지적하고 있는 *Schumpeter's Vision: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after 40 Years*, ed. by A. Heertje, 1981.

- 大野忠男著, 『シユムペーター體系研究』, 1971.
- 伊達邦春著, 『シユムペーター』, 1979.
- 伊達・玉井・池本著, 『シユムペーター—經濟發展の理論』, 1980.
- 日本評論社編, 『シユムペーター—再發見』, 1983.
- Clemance, R.V., and F.S. Doody, *The Schumpeterian System*,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 Elliot, John E., "Marx and Schumpeter on Capitalism's Creative Destruction: a Comparative Restate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 1980, pp. 45-68.
- Foster, John B., "Theories of Capitalist Transformation: Critical Notes on the Comparison of Marx and Schumpeter,"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83, pp. 327~331.
- Frisch, Helmut, ed., *Schumpeterian Economics*, Praeger Publishers, 1982.
- Harris, S.E., ed., *Schumpeter, Social Scientist*,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 Heertje, A., ed., *Schumpeter's Vision: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after 40 Years*, Praeger Publishers, 1981.
- Khan, M.S., *Schumpeter's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Delhi, 1957(日譯版: 金指譯, 1972).
- Lehnis, F., *Der Beitrag des späten Schumpeter zur Konjunkturforschung*, Stuttgart, 1960.
- Schneider, E., *Joseph A. Schneider: Leben und Werk eines großen Sozialökonomens*, 1970 (English trans., 1975).
- Schumpeter, J.A., *Das Wesen und der Hauptinhalt der theoretischen Nationalökonomie*, Leipzig, 1908 (日譯版: 木村・安井譯, 1936).
- Schumpeter, J.A.,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Berlin, 1912 (Fünfte Auflage, 1952).
- Schumpeter, J.A., *Epochen der Dogmen- und Methodengeschichte*, Berlin, 1914 (*Economic Doctrines and Method: An Historical Sketch*, trans. by R. Aris, London, 1954).
- Schumpeter, J.A., *Vergangenheit und Zukunft der Sozialwissenschaften*, München und Leipzig, 1915.
- Schumpeter, J.A., *Business Cycles: A Theoretical, Histor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Capitalist Process*, 2 vols, New York and London, 1939.

- Schumpeter, J.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1943 (Seventh impression, 1957).
- Schumpeter, J.A., *Ten Great Economists: From Marx to Keynes*, New York, 1951.
- Schumpeter, J.A.,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ed. by Elizabeth B. Schumpeter, New York, 1954.
- Schumpeter, J.A., *Das Wesen des Geldes*, ed. by Fritz K. Mann, Göttingen, 1970.
- Schumpeter, J.A., "The Crisis in Economics: Fifty Years Ago," *Th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September 1982, pp.1049~1059.